

치안·공공질서 확립 위해 최선 당부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한교연 내방 환담

김정훈 서울지방 경찰청장(치안경장)은 지난 10월 18일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환담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치안과 공공질서확립을 위해 한국교회와 협력해 주신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서울시민을 지키는 치안총수의 자리에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해왔다”며 “폭력이 근절되고 불평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훈 경찰청장은 경찰대 2기를 나와 평택경찰서장과 용인경찰서장,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9월 23일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했다.

김 청장의 한교연 내방에는 박형길 해와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윤희근 정보1과장, 해와서 서동수 정보과장이 배석했다.

2017년 기획목회사역설명회 개최

미래목회포럼 2017년 사역 초점은 ‘문화목회’



미래목회포럼은 ‘문화목회, 미래교회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세계 기획목회사역설명회를 준비하며 2017년 사역의 초점은 ‘문화목회’임을 강조했다.

2017년 목회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역시 ‘문화’이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이라는 키워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세계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관심에 ‘문화목회’가 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교회들에서만 문화목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로 문화목

회를 하고자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문화목회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목회가 무엇인지?’ 묻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도돼 눈길을 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에서 2017년 세계 목회준비를 위한 ‘기획목회 제12차 사역설명회’를 오는 11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7층 스카이를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목회! 미래교회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21세기 지금 이 시대 목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목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미래목회포럼 교육원장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 사회로 대표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의 환영사 후 조주희 목사(성암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동네교회 이야기’를 발표하며, 점심식사 후 김권수 목사(동신교회) 사회로 박정훈 목사(교촌감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목회 30년’을 발표한다. 이후에는 대표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장로교회) 사회로 현장 실례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최근 몇 년동안 현장에서 임상한 실례사례들을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며 적용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우열 목사(교양 행복한제자교회)가 ‘행복한 책마을, 작은 도서관’, 김영진 목사(모렐 시온교회)가 ‘농촌 살리는 마을공동체, 축제가 있는 교회’, 최혁기 목사(일산 새로운교회)가 ‘북카페교회,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각각 노하우를 발표한다.

YMCA, GMO 벼 시험재배 중단 촉구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서명운동·캠페인 등 진행

한국YMCA전국연맹에 소속된 전국 67개 지역 시청년회는 현행의 식품표시제가 얼마나 소비자들 기만하였는지를 알리고, 소비자 의 인식개선을 통해 GMO의 위험성과 우리 식탁에 얼마만큼 GMO 식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지난 10월 20일 한국YMCA ‘반GMO 행동의날’을 통해 전국67개 시청년회와 함께 피켓시위, 현수막 등시게시, 서명운동, 캠페인 등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YMCA전국연맹과 전북지역의 시청년회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GMO 벼 시험재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식품표시제에 의하면 식품 GMO를 원재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할 때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어 식용류, 당류, 간장 등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GMO포함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한 식품 표시제이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될 경우도 EU 기준 0.9%보다 높은 3%로 지정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YMCA는 지난 9월 6일 유전자 변형 농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결성된 소비자 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25차 웰라이빙 세미나 지도자과정 개설

하이패밀리, 22일 양평 W-zone 세미나 진행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11월 22일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W-zone(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58-41)에서 제 25차 웰라이빙(Well Living : Well Living & Leaving) 세미나 지도자 과정을 진행한다.



W-zone 완공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종합(임종활동)과 위로·안치 예배 등 직접 시연 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하이패밀리 W-zone는 수목장과 갤러리,

청란교회 등 치유와 회복을 테마로 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임종 사역이 필요한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 호스피스 관련 종사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S 다큐 ‘분향을 향하여’ 등 미디어를 통해 하이패밀리 웰라이빙 세미나는 대외적으로 탁월한 컨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컨텐츠에 “Well Living” 잘살고, “Well Leaving” 잘 떠나는 종합’만이 아니라 ‘임종의 영성’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컨텐츠는 SeriCEO(삼성경제연구원) 온라인 강좌, KAIST(카이스트) 행정교육의 오프라인 강의, 육본 사령부 사령관 교육자료, 공군 지휘관 교육자료로 제공됐다.

세기총, 다문화 부부교실 세미나

11월 8일~10일까지 8개국 75개 다문화 가정 참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이하 세기총)가 다문화 부부들을 위한 부부교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회 다문화가정 부부초청 부부교실 세미나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엠스 테이호텔에서 연다.

이와 관련 세기총은 최근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8개국 75개 가정이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각 지역 다문화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강사로는 세기총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를 비롯해 소강석 목사(새아테네교회),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 장종현 목사(예장대신 중경 총회장), 두상달 장로(한국기독교실업인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세기총 신광수 사무총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한국 사회에 바로 정착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서로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세기총 다문화위원장 정서영 목사는 “결혼 이주인들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이런 행사를 계기로 작으나마 다문

화가정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기총은 이날 50개 다문화 가정에 총 2,000kg의 쌀을 전달했다. 중국과 베트남 대표로 참석한 자오옌샤 씨와 소유란 씨는 “매년 다문화 가정을 섬겨주는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사·섬김의 아름다운 모본 경찰 선교에 앞장

송파경찰서, 유병서 경목실장 표창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하며 서울 송파경찰서가 경찰선교 최초로 송파경찰서 경목실장(성원교회 유병서 목사)에게 경찰청장의 표창을 수여했다.

송파경찰서 교경협의회는 송파경찰서 직

원, 전, 의경 등의 위로는 물론, 유치장전도, 유지인상담, 각 지구대 방문상담, 전, 의경대상 예배, 수요오찬기도회 등을 갖는 등 송파경찰서 경목실 목회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본으로 경찰선교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송파경찰서교경협의회는 현재 34명의 교경위원과 유병서 목사를 비롯해서 6명의 서울경찰청 경목실장이 있다.

교경협의회는 또한 학교폭력, 성폭력, 갈취폭력, 조직폭력, 주취폭력 등 폭력 없는 송파경찰, 공평정대한 경찰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찰로 거듭나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경찰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경찰청에 알려지면서 금번 제 71주년이 되는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송파경찰서 경목실장 유병서 목사에게 경찰청장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월드 미션, 회장에 김해중 목사 선임

제9차 정기총회 부천성도교회에서 열려

월드미션 오브 코리아(WMK, 회장 오광근 목사) 제9차 정기총회가 10월 20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11번길 15-25 소재 부천성도교회(김해중 목사)에서 개최하여 신임 회장에 김해중 목사를 선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최지혜 목사(영화교회)의 인도로 하수경 목사(맑은샘교회)의 대표기도, 최승재 목사가 고전 15: 57-58 봉독, 최승재 목사(새신교회)가 ‘믿음의 수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첫째,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증거했다.

정오에는 목사가 한금복송을 하고, 이병애 목사(주사랑교회)의 봉헌기도,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월드 미션 오브 코리아를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내성 목사(필리핀 동남학원 선교

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회장 오광근 목사의 사회로 회신선택 후에 서기, 총무, 감사보고에 이어서 임원선거는 4명의 전형위원(이호성, 김재우, 전순임, 최지혜 목사)들이 조직하여 발표하고 승인을 받았다.

신임회장 김해중 목사는 인사말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되어 큰 책임감과 감사를 표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

남게서 맡겨주신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신구임원교체 후, 회장 김해중 목사의 사회로 안건을 토의했다. 정관개정을 회장단이 수정하여 11월 월례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그밖의 내용은 11월 월례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타 미비한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했다.



예장 열린총회, 총회장에 김의경 목사 재선출

기독교여성 독립·통일운동의 역사 재조명키로

예장 열린 총회는 제16회 정기총회를 지난 10월 10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하고 총회장에 김의경 목사를 재선출하고 기독교여성들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키로 했다.(사진 좌: 초대총회장 유순임 목사/ 중: 총회장 김의경 목사/ 우: 총무 김경호 목사)

동교단은 이와 관련하여 선교초기의 기독교여성운동과 일본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여성항일운동, 그리고 해방이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운동, 기독교여성들의 평화적인 민족통일운동 등 기독교여성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족의 영원한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향한 기도운동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또한 동교단은 목회자들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운동 및 평화통일운동, 여교역자들의 권익과 민족복음화운동, 북한어린이돕기 등의 사업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 나가기로 했다.

총회장에 재선임된 김의경 목사는 “기독교여성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했다. 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큰 힘이 됐다. 아쉬운 것은 기독교여성들의 활동이 역사의 뒤에 감추어진 것이 아쉽다”면서, “기독교여성들의 감추어진 역사를 들추어내, 기독교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벌이겠다. 또한 초대총회장인 유순임 목사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운동과 민족의 영원한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향한 기도운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대총회장 유순임 목사 △중경총회장 김명자 목사 △직전총회장 우정은 목사 △총회장 김의경 목사 △부총회장 김신숙 목사 △서기 최화진 목사 △부서기 임숙운 목사 △회계 이명숙 목사 △부회계 정복익 목사 △사회복지사 장정기 목사 △사회복지사 채정숙 목사 △총무 김경호 유병서 △부총무 정은숙 목사 △감사 원정자 목사 이길자 목사

순복음주품에교회 창립 감사 예배 드려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10월 3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주품에교회(담임 조숙희 전도사) 창립감



사에예를 드리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 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오병용 목사(이편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경준 목사(후영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이

어 충북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16:13-16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전하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생명과 능력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지만, 사람의 교회는 생명도 능력도 은혜도 없으며 분쟁과 분열과 여러 문제가 있다며 창립되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창립 선포, 회계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와 권문집 원로목사(청주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조숙희 전도사의 인사 및 광고, 증경회장 김정수 목사의 축도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순복음주품에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단합대회, 한국 선교 역사의 현장에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10월 27일(목) 단합아워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 더욱 화합하고 결속해 교단과 지방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아침 8시 증평스포츠타에 모인 회원들은 증경회장 김정수 목사의 하루 일정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 서울 마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성지로 향했다.

오전 10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도착해 조선복음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순교한 선교사들의 동영상을 관람하고 그들의 묘지를 둘러 본 후에는 다시 한강 유람선으로 이동, 아름다운 한강 경치를 바라보며 선상 뷔페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서울 경복궁으로 이동해 경복궁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마지막 코스로 평화시장에 둘러 즐겁게 쇼핑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일정의 마무리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비쁜 사역기운에서 단합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

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주님의 더욱 크신 사랑과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사역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단합대회를 마쳤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박승호 목사)는 지난 10월 20일(목) 파주에 위치한 유일레저호수(마정호수)에서 추계야유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증경회장 서영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앞장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했다.

예배 후 회장 박승호 목사의 진행으로 월례회를 마치고 박승호 목사의 사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었다. 이후 일산지방회 회원들은 마정호수 을



레길을 걸으며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울긋불긋 아름답게 수놓아

진 가을 하늘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사랑안에 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목회자 될 것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10월 22일(토) 동강순복음교회(담임 최남성 목



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예배는 정찬식 목사의 인도로 서은자 목사의 기도예 이어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가 설교했다.

최 목사는 계 19:6-21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휴거의 그 날을 바로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각 지지체별 동성애별의 통과저지를 위해, 총회 산하 모든 지방회와 개교회들의 올바른 진리 수호를 위해 기도하고, 교단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부회장 최남성 목사의 사회로 총무 정찬식 목사의 총회 실행위원회 참석과 총무보고, 회계 서은자 목사의 8월 하기 수양회 결과와 지난 3개월간의 수임과 지출에 관한 보고 등 각종 회부처리를 진행했다.

이어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여 교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별교의 식으로 자리를 옮겨 동강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한 후 11월에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며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쳤다.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울진 갈릴리노스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대구경북지방회 제직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는 지방회 부회장 정진학 목사(대전사랑교회)의 개회예배로 시작해 제1강 증경회장 진영강 목사(주천양교회)의 '제직의 자세', 제2강 증경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노스망교회)의 '제직', 제3강 지방회 회장 신재영 목사(세김전교회)의 '성령론', 제4강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기도'에 관한 강의가 이어진 후 은혜와진리



대구교회 이석호 목사의 '원면과 축복의 말씀'으로 모든 강의를 마쳤다.

참석한 제직들은 먼저 말씀 안에서 자세를 확립하고 견고하게 정립한 후에 담임목사의 동역자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는 제직들이 될 것을 결단했다.

세미나 후에는 참석한 지방회 회원들과 제직들이 교단의 발전과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 제직들의 말씀충만한 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회 산하 교회들이 연합해 감당하는 사역들에 제직들이 최선을 다해 동역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목회자들의 진정한 연합과 헌신 다짐

경기중부지방회

경기중부지방회(회장 김동문 목사)는 지난 10월 17일(월) 강원도 속초 야외 여행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끽하며 목회자들의 진정한 연합과 헌신을 다짐했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 들른 장소는 속초를 대표하는 자연 석호호수 청초호로 이곳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다.

김동문 목사(경기중부지방회장)는 시편 12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돌보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목회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과 복 주심에 힘입어 건강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목회를 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1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속초 아바이마을로 이동해 제 절을 맞은 홍길로 식사를 하고 가을동화 촬영지로 유명한 갯배 선착장에

서 배를 타며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평안함 가운데 목회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중부지방회는 회원 수는 많지 않으나 건강한 목회 바른 목회를 위해 전 회원이

매진하고 있으며, 매사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매사 겸양하며 효율적이고 실체적인 목회를 위한 지혜를 모아 가는 지방회로 발전하고 있다.



충성된 증인이 되어 복음사역에 앞장 설 것

서울남서지방회

서울남서지방회(회장 이복순 목사)는 지난 10월 20일(목) 진리와사랑교회(담임 이복순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 날 1부 예배는 이치호 전도사(믿음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신은순 목사(번석교회 담임)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이복순 목사(진리와사랑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딤펢전 1:12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 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충성된 수종자, 충성된 지도자,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축복했다.

예배 후 이어진 2부 지방회 행정보고에서는 총무보고, 재무보고, 회계보고를 처리



한 후, 조선남 목사(대림반월교회)의 헌금 축복기도 및 축도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조원채 목사

· 교단 재무
· 풍암순복음교회

‘시종여일’이란 말이 있다. 처음이나 나중에 한결같아서 변(變)함 없음.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과 같이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무후무하게 받아 누렸던 솔로몬, 그는 부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초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시작하였지만 시종여일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세속적 부귀영화에 젖어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전도사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무슨 수고와 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고”(전 1:2-3)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자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 아내로 삼은 밋새바의 소생으로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시종여일(始終如一)

왕상 3:1~15

왕이 되기에는 어려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장자 아도니아스를 제치고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낳 때부터 그를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던 것이다.(삼하 13:24,25)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본격적인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시자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다.(왕상 3:7-9)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의 겸손한 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왕상 3:11~13) 그리고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는 ‘넓은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 4:29-30)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점점 명성이 높아지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전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고, 수많은 이방 여제들과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과오

를 범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허무한 인생고백을 남겼으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왕상 11:1~13)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되,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이 쌓은 업적, 명예, 자랑, 권세, 건강, 부, 행복 등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전적 의미로는 “겸손함이 없이 잘난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신앙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라고 하였다. 반면에 “겸손은 준권의 앞잡이니라”(잠 18:12)는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御命)이요 신명(神命)이기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우리의 귀를 통해 전달되지만, 그것은 곧 마음의 변화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

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이 전달되어야 할 최종 목표는 손과 발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도(正道)를 따르는 것이요, 겸손하고 바른 삶의 비결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죄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엔 교만에 이르러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윗은 인간적인 실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음이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모든 통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앞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다음과 같이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을 지켜 그 법들과 계령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왕상 2:1~3)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떠한 통치적 능력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낀 다윗이었기에 본인의 사직에 대한 기념도, 영토 확장 같은 군사적인 과업도, 경제적인 번영의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여호와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신앙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명성이 높아지고 주변국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기 위해 금은보화를 기득신고 물려오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분수를 자비하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그 소중한 유언조차 저버리는 불효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인생말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우침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만사가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잘되는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늘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스스로 낮아지는 이들을 더욱 더 높이 들어 세우시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사랑들로부터도 사랑받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겸손함으로 시종여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솔로몬의 허무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을 하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에는, 구국봉사단, 새마을봉사단으로 바뀐)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현재에도 세간에 거론되고 있다.

‘목사’란 호칭은 정통 기독교의 성직자에게만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정상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 교단이나 교계에서 인정된 신학교정과 목사인수를 받게 된 과정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현재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9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문제도 아닌,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통교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박수 무당이나 다름없는 인물을 계속하여 ‘목사’라는 성직자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치제에 인문들과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고 최태민 씨에 대한 성직자 명칭 사용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

동 정

한기부 회장에 양명한 목사



(새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대표회장으로 양명한 목사(황성교회), 상임회장에 윤보환 목사(영광교회)를 각각 추대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회원과 증경회장단은 지역복음화를 위한 전도에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희학 교수, 한국구약학회 회장에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한국구약학회 총회에서 목원대 신학대학 이희학 교수가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55년 전통을 지닌 한국구약학회는 ‘구약논단’이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를 발간하며 구약학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결대, 독거노인 이·미용 봉사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 뷰티디자인학부 나누미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성결대 기점관에서 안양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2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마사지, 피마 등을 통해 평소 자신들을 돌볼 여유가 없던 독거 어르신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나사렛대 물리치료학과 의료봉사



나사렛대(총장 임승안) 물리치료학과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아산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관리가 힘든 발달장애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켜 훈련 성과와 경기력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고 최태민 씨는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성직자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것은 정통교단 성직자에 대한 모독이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혹을 규명하고 나가야 할 정치적/사회적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최순실 씨가 고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것과, 그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연일 언론에 화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진상규명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고 최태민 씨의 ‘목사’ 병칭은 계속 나올 전망이다.

그렇다면 고 최태민 씨를 ‘목사’라고 불러도 되는가? 왜냐하면,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황에서, 기독교 ‘성직’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은,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 최태민 씨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성직이 남발되는 것도 그렇지만, 성직자의 과정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성직자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아무 여과 없이 함부로 성직자로 불러도 안 되는 것이다.

과거 최태민 씨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부산지역 모 기독교 언론인에 의하

면, 고 최태민 씨의 이력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는 1945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라는 곳을 통해, 목사라는 호칭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교단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당시는 이단/사이비 100여 개가 판을 쳤다고 함) 그가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1970년대에는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병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사이비 교주 행각을 벌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가하면 고 최태민 씨는 1970년대 고 육영수 여사의 영(靈)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거짓말로, 극심한 심적인 고통 중에 빠져 있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令

애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니, 이는 박수무당에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딸 최순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져, 오늘 이 같은 큰 사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최태민 씨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정통 교단을 통해 목회 활동을 했든지,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는 1912년 황해도에서 태어났고, 일제시대에는 황해도경의 순사로 일했으며, 1950년대에는 모종의 사건으로 사찰로 도피하였다고 그곳에서 승려가 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씨는 1994년 사망했으나, 1975년 현 대통령과 관련된 ‘대한구국선교회’(이중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	2년4학기(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수시
- ② 원서접수: 수시
- ③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국가인권위의 구조적문제점 신랄 지적

미래목회포럼, 건강한 미래 위한 한국기독교인권본부 12월중 출범

한국기독교인권본부가 출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가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포럼을 지난 10월 27일 개최했다.

1부 강담회는 이효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현 국가인권위원)가 취지설명을 했고 오정호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새로남교회)이 환영사를 전했다.

포럼에서는 부대표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를 좌장으로 정성진 목사(여북한빛광성교회)의 개회기도와 김관상 사장(CIS 기독교TV)의 격려사 후 남윤제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동성애 인권화: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기독교 인권과 동성애 예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패널로는 서정숙 회장(한국여약사회), 김영길 대표(군인권문제연구소),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 등이 나섰다.

포럼개회사에서 이상대 대표(서광성교회)는 "출발을 준비하며 한국기독교인권본부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바른 인권적 가치를 지키고, 모든 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며 "인권본부가 먼저는 연구에 주력하고 기본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해 번역과 출판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포럼이 무에서 열심히 뚝도록 하겠다"며 "한국기독교인권본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부대표, 송촌장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입법, 사법, 행정과 문화와 인권 등 각 영역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보다 바른 인권, 다음세대를 위한 인권,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인권본부의 출범과 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남윤제 변호사는 미국헌법의 동성애에 대한 전개과정을 소개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영국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각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반응이다"라며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직면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동성애 인권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교회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품는 것이다"라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이 자신들의 낙하함을 그리스



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자세인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특정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자신이 묶여있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공동체이자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며 회복하는 곳이었다"며 "동성애자들도 그런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두 번째 교회화 해야 할 일로 인권에 대한 교회의 정의와 이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인권은 교화와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다양한 철학자, 정치인, 사상가들을 통해 거듭 발전해 왔다"며 "천부인권은 노예제도를 없애고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런 사실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소수들을 돕는 제도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인권보호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런 성경적, 역사적, 제도적 인권보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의 역사와 경험을 반영하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 또한 큰 과제"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 '성적지향'이 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이 '인권'에 포함되지 않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으로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차별행위의 예시로서 '성적지향'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성적 지향'을 문제삼자,

발의자는 '성적 지향'을 '성적'으로 고치고, 그것은 학교의 '성적(成績)'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학생들을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법원 선고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민족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성적 민족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에 동성간의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가인권위 관련 교계 인사들도 국가인권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영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법"이라면서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법조인 출신인 다른 위원들의 논리에 압도돼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이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국가인권위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인권 문제들에 묻혀 교묘하게 넘어 가는 상황"이라며 "민약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월 15일경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기독교인권본부는 한국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주력할 것으로,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교회언론회 제15차 정기총회 동양대에서

이사장, 대표, 대변인 등 대부분 유임되다

한국교회언론회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8일 동양대학교 복서울 캠퍼스(동두천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외부 인사 초청보다, 언론회가 출범한 지난 2001년 초창기부터 수고했던 분들을 모시고 회고와 다짐을 위한 성격의 총회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최성혜 이사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우리 언론회는 주님을 널리 알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십자가 군병으로 싸우는 사역이다. 그리스도 정병에게는 가장 중요한 병기인 하나님 말씀에 의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또 대표로 연임하는 유만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임기를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론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명예대표 김승동 목사는 '멋지게 살다 갑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다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멋지게 살다 갈 수가 없게 된다. 오직 주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회가 더 잘하여, 위상을 크게 높여 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유임되었는데, 다만 이병대 목사가 세 번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논설실장을 맡았던 심만섭 목사가 후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심 목사는 언론회에서 사무국장으로 15년, 논설실장으로 1년 간 근무한 바 있다.

이날 예배는 한성원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하여 최성혜 이사장의 환영 인사, 김용운 부산장신대 총장의 기도, 나대균 이사의 성경봉독과 수지산성교회 협시바중창단의 찬양, 그리고 초대사무총장이자 공동대표를 지낸 박영률 목사의 축사, 명예대표 박봉상 목사의 격려사, 전문위원 박재천 목사의 축사 낭독, 대변인 이억주 목사의 경과보고,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의 광고, 공동대표 원효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에서는 정관 및 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난 1년간 시행된 일로는, 보도자료 10회, 논평 78회, 공문발송 21회, 공문 수신 13회, 실행위원회 10회, 임원회의 1회, 총회 1회, 방송출연 및 인터뷰 수십 차례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언론회는 변함없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알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새로운 인재들과의 동역과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구세군, 글로벌 구호물품 지원 행사

몽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운동화 선물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한국구세군 몽골대표부(사관 이종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가 최근 국내 기업(스베누, 패션그룹형지, 제로투세븐, 제시앤코)으로부터 후원받은 신발과 의류를 울란바토르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44번 종합학교 학생 1,400여명에게 선물하는 구세군 글로벌 구호물품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나눔행사를 진행한 한국구세군 몽골대표부 이종우 사관은 인터뷰에서 "작은 나눔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혹독한 몽골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준 후원 기업들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터부이이막(도) 종모도시의 4번 학교 학생 500명에 대한 신발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한 이번 구세군 글



로벌 구호물품 지원 행사는 터부이이막 내 1, 3, 5번 학교 학생 1,500여 명과 몽골 국립체육학교 학생 1,000여 명을 포함하여 총 5,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신발과 의류를 지원하게 된다.

홈페이지: [www. agtc.or.kr](http://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학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 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제18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설교	사회	대표기도	축도	성경봉독
					
이광용 목사 대표회장	예영수 목사 고문	장승우 목사 상임회장	임은선 목사 지도위원	이강익 목사 상임회장	이후현 목사 지도위원
축시	격려사	격려사	축사	축사	축사
					
김광호 목사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 상임회장	송기호 목사 예장 연합장신, 총회장	육옥수 목사 고문	김기형 목사 고문	유영식 목사 예장미어선, 중경총회장

- (사)예장연 임원 -	
고문	김원식 육옥수 김기형 예영수 송현 이원일
대표회장	이광용
상임회장	이성현 이강익 김광호 김승자 차득환 박영성 장승우
자문위원	이태주 조요한 황근옥 변관능 오종산 박요한 이원호 서재복 한순용 김병선 김태경
지도위원	고종권 김용현 유연식 하석수 안병삼 김남식 황대영 임은선 이후현 정태익
총무	이명승 김광제 강기봉 오준호 차요한 백만기 하태관
서기	손대영 부서기 정찬희
회계	오선미 부회계 김마리
감사	김태지 정태래

제18회 정기총회
(사)예장연에 가입된 85개 교단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며 (사)예 장연 2016년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대강당) ● 협찬 : CTS기독교TV, 복음신문, 목양신문 교회연합신문, 크리스찬연합신문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4길 3(원석빌딩 201호)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패키지여행 / 허니문 / 크루즈 / 골프 / 어학연수

적립식여행 시스템으로 목돈의 부담없이!!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매월 적립식 납입으로 부담없이
납입기간 내 완납 시 언제든지 출발가능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가능
고객의향에 따른 맞춤 설계시스템

☆품의 여행단 모집☆
010-2339-7601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320호
(번동 446-13)

 씨지투어 CG TOUR (주)씨지투어 www.cgtour.co.kr TEL : 02)903-4744 / FAX : 02)903-4745 / HP : 010-2339-7601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가을 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고문



조남영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순복음예수나라교회

주강사

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전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뱌엘교회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알립니다!

1. 당일 낮 12시까지 모여서 예배 후 점심식사
2. 오후 2시에 산행기도회 장소로 이동 후 산행기도회 실시
 - ①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 ②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 ③ 교단 발전과 정책위원장을 위하여
 - ④ 총회장님과 임원들과 교단 교회들을 위하여
 - ⑤ 교단 부흥사회의 활성화와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과 역동적인 사역을 위하여
 - ⑥ WCC와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동성애허용 입법 추진자들의 활동저지를 위하여
3. 하산 후 저녁식사
4. 오후 7시부터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세미나
5. 성령충만 기도회 및 임·회원간의 토의와 질의응답의 시간
6. 교제 및 레크레이션
7. 취침
8. 다음날 오전 7시에 아침예배 후 조식
9. 오전 9시 - 부흥사가 갖춰야 할 덕목 및 바른 사역을 위한 세미나
10. 오전 11시 - 부흥사들 간의 자유토론회
11. 낮 12시 점심식사 후 각 교회로 출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열정적인 부흥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 29일(화)

| 장 소 | 가평순복음교회(담임:조남영 목사)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84-3

☎(031)582-2835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6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총 회 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뱌엘교회)
증경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회 장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상임위원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 회 장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상임부총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미교회)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사무국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
실무총무 박종열 목사(오성사랑교회)
서 기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재 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
회 계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감 사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회 원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방교회)
정환무 목사(순복음빛교회)

“WCC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지 않는다”

[인·터·뷰] 김향주 박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2013년은 WCC 10차 총회로 인한 논란과 보수, 진보의 극명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반대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에 WCC 10차 총회 3주년을 즈음해서 당시 WCC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김향주 박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통해, WCC반대운동과 관련된 당시 상황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 들어 봤다.

“WCC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이름으로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해방신학과 인권평등운동을 통한 무종교적 종교운동입니다. 즉 종교다원주의, 동성애지지, 종교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죠.” 김향주 박사는 지난 2013년 WCC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7인중 한 명으로 WCC 제네바 본부에 합의 방문차 들렀다가 그곳에 이집트의 신상들이 그려져있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기독교연합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잡신운동을 하는 곳 같았기 때문이다.

“행정책임자 MARK BEACH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보수교단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백만 명 이상이 반대서명한 카피본도 들고 가서 보여주니 몹시 놀라워했고, 한국교회의 입장과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수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부산백스코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 때는 출입증을 얻어서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는 김향주 박사는 ‘그곳에서 종교통합의 실체를 봤다.’면서 ‘성경을 인용만 했지 내용이 성경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해외에서 참석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직접 대화도 나눈 김향주 박사는 ‘호주 목회자회 대표 회장이라는 한 목사가 ‘FAKED, 속임수다!’면서 ‘교회 이름으로 이런 모임이 있을 수는 없다’고 분을 토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전한다. 유럽에서 온 목사를 중 한 명인 영국의 스미스 목사는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다.’며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 내기도 했다고 한다.

“WCC를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만 보고 참석했다가 낭패를 당한 거죠. 실체를 정확히 모 른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WCC 10차 총회가 열리는 내내 부산에서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한다. 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열정적인 성도 수천 명이 모여 WCC반대를 외치는 모습이 가슴에 남아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저변싸움입니다. WCC에 예속된 NCCK를 하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NCCK처럼 WCC 밑에 각 나라마다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허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WCC는 예수님만이 절대 구세주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NCCK에서 로마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 일치운동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연합이라는 미명아래 교회파괴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향주 박사는 ‘인류의 교회역사는 신앙고백 위에 형성되어 왔다.’면서 이것을 넘어서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NCCK를 중심으로 신앙과 직제 일치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뺀채로, 로마 가톨릭에 비치겠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목사 장로’ 이런 직제 다 폐기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 추기경 신부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1500년이나 내려온 그들의 직제를 변경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신학과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기초한 사도들의 신앙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눅 16:28-31) 우리들의 신학은 고백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신앙고백이 어저스틴, 칼빈, 존 나스, 한국의 박형룡, 박윤선 박사를 거쳐 정통을 따라서 내려온 신학입니다. 즉 족보를 갖고 있는 신학입니다. 어떤 변질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역사적 신앙고백에 의한 신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신앙고백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깔려있다.’고 말하는 김향주 박사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에도 순교의 피값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625 동란을 통해서만 10만 이상의 순교자가 피를 흘렸다.’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WCC와 NCCK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교회연합이라는 미명아래 교회이름으로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해방신학과 인권평등운동을 통한 무종교적 종교운동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순교의 피값으로 이룬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헤럴드 제공

ACT'S, 제38회 선교대회 개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양평 캠퍼스에서 열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지난 10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경기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캠퍼스에서 ‘제38회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선교를 위한 비전과 꿈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8회를 맞는 선교대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Isaiah 60:1)”라는 주제로 최남수 목사(광명교회 담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가 말씀을 선포했다. 광명교회는 오랫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심으로 사역해왔다.

선교대회 중에는 나라별 릴레이 기도회, 선교단체 홍보부스 운영 및 설명회, 단기선교 사진전 등이 진행되고, 둘째날(27일)에는 선교현신예배가 오전 10시30분부터 강당에서 드려졌으며, 이후 각국 선교연구원원들이 나가기 전에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5개 학과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외 5개의 특수대학원이 운영중이며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 1974년부터 학위를 수여한 이래 4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422명 및 많은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기독교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2회 국제우주사랑교육과정개발문화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음성·문경캠퍼스에서 개최

글로벌선진학교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 대원 금석탄실현학교와 함께 음성캠퍼스와 문경캠퍼스에서 제2회 국제우주사랑교육과정개발문화제를 개최한다.

글로벌교육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문화제는 첫날 강화도에 위치한 옥토끼 우주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韓·中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강연회, 청소년 예술제 등 우주에 대한 지식과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개발현황을 확인하고 인류의 공동선(善)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

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원 금석탄실현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약 120여 명과 글로벌선진학교 음성, 문경, 미국 캠퍼스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학생들은 태권도 체험과 서화대회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반기문 생가 등 지역 명소도 둘러 보았다.

지난 2015년 9월 18일 글로벌선진학교와 대원 금석탄실현학교는 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우호협약 체결 후 올 봄 중국 대원에서 우주의 날을 맞아 1회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대한민국’ 개최

CTS창사 21주년 기념공연, 지난 31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서

CTS기독교TV(김경철 회장) CTS예술단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으로 ‘창사 21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에는 CTS예술단 소속 CTS교향악단(지휘·단장 동형준) CTS오페라단(단장 김학남) CTS권사찬양단(지휘 하찬송 단장 홍복희) CTS장로찬양단(지휘 박성일 단장 조준호) CTS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성일 단장 윤학원) CTS 프로젝트 콰이어(지휘·단장 윤학원) CTS소울과이어 중창단(지휘·단장 손인오)이 출연해 성가곡을 비롯 귀에 익은 가곡을 연주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았다.

소프라노 박미자(이화여대 교수)와 테너 이정원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도 출연해 아름다운 오페라를 선보였다.

CTS 김경철 회장은 “CTS가 영상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한지 21년을 맞았다”며 “그중 CTS가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문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CTS예술단”이라며 “이번 CTS예술단 공연으로 한국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해 예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TS예술단 총감독 윤학원 장로는 “기독교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CTS예술단은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성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113번지) 010)2415-206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WCPM ‘2016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

‘김범일 이병욱 이승률 전재규 진이권’ 수상

세계CEO전문인선교회(대표 박형렬 목사, 이하 WCPM)가 주최하는 ‘2016 지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이 11월 12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WCPM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백만 전문인 선교사 시대를 열자’(마 28:19-20)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각계각층의 전문인 선교사들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크리스천들의 본을 삼고 있다.

이번 수상자들은 가나안농군교회 김범일 교장과 대암클리닉 이병욱 원장, 참포도나무병원 이승률 이사장,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사문화운동본부 전재규 이사장, (유)금성상공 직전대표 진이권 회장 등 5명이다.

가나안농군교회 교장이며 한동대학교 이사장인 김범일 교장은 가나안농군교회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활동과 사회교육에 기여하여 전문인선교에 크게 공헌해 왔고 한동대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다.

올해로 개교 43주년을 맞는 가나안농군교회는 중국, 필리핀, 우간다, 볼리비아,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 12개국에 해외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빈곤 퇴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 고신대의와 차의과학대학교 외과교수이며 대암클리닉 원장인 이병욱 원장은 의사전도왕, 암 박사, 의료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암과 통합의학 발전과 의료 및 교육 전문인 선교에 공헌했다. 필리핀 세부, 두께기라오, 라군, 아바리, 일로일로, 레이테섬, 보홀섬, 방가완, 민다나오, 마르벨레스 지역과 몽골, 태국 등에서 27년째 의료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기아대책 파송선교사,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공로상

강소비라·권혜영
기대봉사단 수상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강소비라·권혜영 기대봉사단이 선교지에서 20년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KNCF)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소비라 기대봉사단은 1996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돼 지역사회 보건 지역, 장애아 재활 지역 등을 해 왔으며 2013년 G국으로 옮겨 사역을 이어왔다.

권혜영 기대봉사단은 1998년부터 온두라스에서 가난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역해 왔다.

강소비라 기대봉사단은 “천국으로 나 있는 예수와 같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의 중보로 이 지리에 섰다”고 고소감을 밝혔다.



권혜영 기대봉사단 역시 “20년간 사역지에서의 삶 자체가 주님이 주신 상이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13일 오후 3시 세브란스병원 6층 예배실에서 대한간호사협회 창립 49주년 학술대회

와 함께 진행됐다.

기대봉사단은 기아대책에서 파송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재능과 기술, 헌신된 마음으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물질 및 정신적 필요를 지원한다.

백석문화대 ‘2016 행복교육박람회’ 참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우수대학 자격으로 프로그램 홍보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가 지난 10월 20~22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우수대학 자격으로 참가했다.

백석문화대는 6개 영역(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 진학 활성화) 중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홍보관에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참가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체험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체험과정’을 운영하는 백석문화대는 원두커피와 머신과 커피원두 분쇄기, 디지커피 도구 등을 이용한 △커피 바리스타 시연 프로그램 △핸드드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홍보에 나섰다.

특히 백석문화대학교는 지난 2년간 진행한 특성화전

문대학육성사업 운영 83개 대학 중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10개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사업비 약 50억 원을 추가 지원받기도 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

저는 8월 초에 개척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성안교회 김도보라 목사입니다. 지인들이나 신학 동기들은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편안히 있지 개척은 무슨 개척이냐며 요즘은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명의 성도도 없이 2개월 동안 혼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하려고 했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집이 멀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각종 이자를 생각하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다. 더 이상 기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매주 금요일마다 한양대 구리병원 원목실을 찾아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불신자와 불교신자, 가톨릭 신자 등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넘쳐났습니

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필요 없으며 손 사례를 치기 바빴고, 나가서 돈이나 벌지 왜 이런 일을 하냐며 저를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또 전도지 40(정)을 들고 아파트 전도에 나간 날은 다리에 힘이 빠지도록 걸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

다. 전도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금식성회에 참석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어느 날, 박영수 목사님이 주관하는 가족세트전도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

다. 1년에 3천 명을 직접 안수하고 전도한다는 게 가능할까? 미심쩍은 마음을 안고 첫날 첫 날, 박 목사님의 전도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자라났습니

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대상자들에게 1분 동안 영점기도를 시키고, 기념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교제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에 온 열정을 쏟은 결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

다. 하지만 이기적의 현장에서 또 다시 의심이 솟아났습니

다. 이번에는 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박 목사님은 40년 동안 전도를 연구하고 기도한 분인데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도 없고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제가 전도의 은사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세 힘을 주셨습니다. “영점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는 말씀을 주시며 저를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

다. 그리고 가족전도세트세미나를 듣고 찾았던 한양대 구리병원 봉사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 병원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확신에 차 외쳤습니

다. 이전에는 손 사례를 치며 거부하던 환자들도 어찌된 일인지 저의 축복 안수기도를 기쁘히 듣고 있었습니

다. 안수기도가 끝난 후에는 몸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병이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순순히 기도 받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교회 다니는 지 물어보았더니 불교신자, 가톨릭 신자, 불신자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

다. 분명 지난 주까지도 저를 문전박대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나만의 열정으로 개척을 결정했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게 말씀을 가르치며, 양들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이나 육체의 부흥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한 인생들이 영혼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시는 사명과 함께 열방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성안교회 김도보라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생명나무숲교회 창립감사에배 드려

담임 장헌일 목사, 본격적인 사역의 발걸음 내디뎈

생명나무숲교회(장헌일 목사) 창립감사에배가 10월 23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새성전에서 드려졌다.

교계와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하던 장헌일牧사는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지난해 6월 여의

도 국회 앞에 공간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다 지난 3월 현재 위치로 교회를 이전한 후 이날 창립에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사역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창립에배에는 그동안 장 목사와 함께 뜻을 모아 함께 사역하며 협력해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

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

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부산 주찬미교회 새성전이전 감사예배 드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 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는 지난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 동교회 새성전에서 이전감사예배를 드리고 지역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사 60:1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죄악으로 인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회이전 공로자로 소개된 윤혜영 목사(주찬미교회 담임)는 주찬미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길 부탁했으며, 지방회증경회장 박 웅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화교회, 이웃 어르신 섬김 사역 실천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 대화순복음교회(담임 안선자 목사)는 올 여름 겪은 은혜로운 경험을 고백했다.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 있던 안선자 목사는 몇 달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무엇을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되고 온 몸의 관절이 쭉시며 몸은 나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전도활동도 잠시 쉬고 있던 터에 우연히 가톨릭신자인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아버지로 늘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질색을 하는 걸 알기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625합전 용사이기도 해서 당시 상영 중이던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큰 관심을 보였고, 친구 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는 6.25합전 용사 모임을 통해 43명의 인원을 모집했고 안선자 목사는 금액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켰다. 단체관람을 위해 극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안 목사는 또 한번 난관에 부딪혔다. 어른들과의 약속시간은 일주일 후인데, 영화가



개봉한지 몇 주가 지난 터라 극장 상영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극장에 전화해 상영 여부를 묻고 안절부절 하는 안 목사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대책 없이 약속을 잡다니 사고뭉치다'라고 걱정했다. '주님 아시지요? 내 걱정 다 아시지요?' 하며 기도하던 주일 밤, 드디어 극장에서 상영 연장 소식을 알려왔고 경로우대 할인까지 받아 금액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영화 상영 당일, 43명의 참전용사들이 제복을 입고 훈장을 차고 모자까지 쓰고 극장에 찾아왔다. 그들은 안 목사의 손을 잡고 '목사님이 좋은 일 하신다'며 고마워했다. 이에 안 목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심부름꾼입니다'라고 어르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까칠하던 이웃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종종 교회 침전을 하며 안 목사의 안부를 묻는다. 안 목사는 이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할아버지들 찾아 마음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그 날 이후 안 목사는 건강도 회복되어 성경공부와 전도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며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모시는글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송년 예배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오후 4시 30분
| 장 소 |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691-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 전원
| 주 관 | 여교역자국
| 문 의 | 국장 탁정신 010-5313-3379
차장 김효신 010-3784-3731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각 지방회



정석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기획실장	행정부장	설외부장	경조부장	예배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사회부장	선교부장	봉사부장

전국지부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초대시

정문석 시인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 마태복음 9장 22절 —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했다면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
잃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잃음으로 비로소
한밤에 일어나
자기의 믿음을 가늠해 보고
애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보고
간구한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주여
당신의 보혈이
핏줄마다 서리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당신
옷깃으로 스치는 것만으로
믿음으로
저를 구원하게 한
이
영원한
원리 속에서
더욱 상쾌한 새 날을 맞게 된다.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장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 '요람, 발간
· 시집 '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 '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한국복음주의협
발표문

원주희 목사 // 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가장 소외되고 약한 말기 환자들을 섬깁니다 ②

호스피스 봉사의정의

호스피스 봉사는 중세기에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편히 쉬고 갔던 숙박소에 서 유래된 것으로서 여기서 아픈 사람들과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숙식과 약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관심을 배풀어 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스피스(Hospice)라는 말은 라틴어 hospes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에는 집대하는 사람(Host)과 손님(Guest)의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기 암이나 말기 에이즈 등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Care)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잔여수명이 약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예측되어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섬김을 받

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말기환자가 위엄을 유지하면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생의 마지막까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울러 환자의 가족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호스피스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

1. 죽음 준비
2. 죽음의 고통 경감
3. 장례 봉사
4. 가족지지

호스피스 사역의성경적 의미

1. 예수님이 하신
2.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3. 잃은 양을 찾는 마지막 기회
4. 부활신앙 증거
5.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선포

호스피스 사역의 기대 효과

1. 죽음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 전파
2. 죽음준비문화 확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 확대
3. 죽음의 고통 해결을 통해 교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
4. 기독교적 생사관으로 장례문화 개혁

한국교회의 호스피스 사역 동참

1. 각교회 호스피스 프로그램 도입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려 오신 예수님 사랑 실천
2.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땅 끝선교의 사명 감당

사 설

국가 지도자를 위기에 빠트린 사교(邪教)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또한 정신을 가진 인격체이다. 정신이 건강치 못하면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파급되는 영향이 심대하게 된다. 사람의 정신에 나쁜 것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사교(邪教)는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교(邪教)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치를 실증한 사건이 바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라 하겠다. 박 대통령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깝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이 엄청난 상황(俄況)과 사태는 사교에 몰든 최순실이라는 비전 실제 여인을 감추어 두고 오랜 세월 그 여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 다닌 결과이다. 그 결과가 오늘의 국정 혼란과 '국정 농단'이라는 대란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이 세간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세의 젊은 시절에 어머니를 간첩의 흉탄에 잃고 충격의 나날을 보내던 중 최태민(1912. 8.25~1994.5.1)이라는 '목사' 신분을 팔고 다니는 사교 교주의 미혹에 빠졌었다. 당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대로(伏魔)하여 그 관계를 단절하도록 엄중히 경고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대통령의 딸 박근혜는 '영생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세인들을 현혹하는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이, 죽은 어머니의 환영을 불러 올려 보여준다는 위로 편지를 받고 그 사교 교주와 관련하게 된 것으로 이는 항간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최태민은 당시 처녀 박근혜 보다는 40세가 위인 62세의 일종의 '최면술사'였다고 한다. 어머니를 잃은 5년 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또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고 그 후 최태민과 그 딸들과의 깊은 인간관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사후 37년이 지난 오늘까지 최

태민의 '다섯째 부인'에게서 난 '넷째 딸'인 최순실이란 여성과 '혈연보다' 깊은 인생 동반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언론의 조사 보도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최태민은 딸 최순실을 '영적'으로 가장 뛰어나 영생교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친구도 없고 친척도 답을 쌓은 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신여성으로 살면서 젊은 시절 빠져들었던 영생교의 후계자인 최순실이란 여인과 함께 긴 세월 밀착된 인간관계를 가져 오면서, 사교의 영향을 떨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5. 5. 제1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꿈 나들이' 행사에 참석, 대통령이 꿈이라는 진도초등학교 학생의 말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던 전 우주가 나아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리고 꿈이 이뤄진다"고 말한 사실이 영생교 영향 증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최순실이란 여인의 아버지인 최태민은 1970년대 초 불교·기독교·천도교를 통합했다는 사교(邪教)를 만들고 교주로 지냈다 한다. 최태민은 1975년 4월 사교의 이름을 내리고 '대한국신교단'이란 것을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1976년 대통령의 딸로서 최태민이 여러 단체를 통합해 만든 '새마을봉사단'의 총재를 지냈고, 당시 최순실은 대통령의 딸 박근혜를 도와 그 단체의 대학생 회장을 맡았다. 영생교는 "살아 영생"이라는 사설(邪說)을 가르친다 한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실체는 원래 신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람이 원래의 실체로 돌아가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최순실이란 여인이 배우와 하여 요즘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비트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비트'와 'K'를 연결시키면 '비록'이 되는데,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이 자신을 '비록'이라 불렀다고 한다. 얼마나 집요한 사교의 미수가 움직였나를 짐작하게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고 끝에 다메섹 순복음교회에서 목양신문사와 공동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1. 서론
2.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 것이다.(마 5:3)
3. 빛이 있으라.
4. 계시, 감추어진 것
5. 에덴, 천국
6. 영에 관하여
7. 영 분별에 관하여
8. 결론
에덴(비유) 천국(실상)
천국은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림이 완성이다(마12:28).



개강 2016년 12월 8일(목)

-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흥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010-6202-6312

‘제67회 구역장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전도와 교회와 성도 섬김에 전심전력 다짐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는 지난 10월 31일(월)과 11월 1일(화) 이틀간 성전별로 나누어 전 원성전과 안양성전에서 각각 올해 하반기 제67회 구역장 세미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개최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렸다.

세미나에서 구역장들은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신령한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헌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복음전도와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성전과 교구별로 상호 격려하고 축복하는 환영의 시간, 구역장 20년 근속상과 하반기 전도상 시상식, 특강 순서로 금년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특강에서 구역장들의 사랑과 선함을 치하하고 병원과 의사가 행하는 기본적인 일과 비교하여 사람의 영혼과 성도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하는 구역장의 그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의사가 하는 기본적인 일이 환자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진단하여 알려주고 이어서 그 치료방법을 알려주고 치료해 주는 일이라면, 복음전도자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병든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초래할 멸망과 영원한 지옥형벌에 대해서 알려 주고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복음전도자의 임무가 의사의 임무와 또 다른 점은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의사와 달리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법정전염병과 같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신자가 생기기 마련으로, 이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며 적절히 조치하므로 교

회가 항상 건강하고 안정되게 할 책무가 구역장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주의하여 경계하고 관찰할 그 대상으로 이단에 접촉된 자, 단단히 조직에 속한 자, 세속적인 모임에 신자를 끌어들여려는 자, 소위 예언자라는 자들과 사이비한 기도원 등을 찾아다니는 자라고 지적하고 영혼이 오염되지 않고 악한 영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조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구역장 직분에 대한 신령한 긍지를 갖고 꾸준히 헌신 봉사하도록 당부하고 구역장들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구역장들이 되도록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

한편 특강에 앞서 열린 구역장 20년 근속상 시상식에서는 안양성전 전광렬 구역장과 원주성전 김옥례 구역장 등 올해로 20년째 변함없이 복음전도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33명의 남녀 구역장들이 영예로운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어진 올해 하반기 전도상 시상식에서는 안양성전 강미경 수석구역장이 전도특별상을 수상하고 인현성전 신정인 수석구역장 등 34명이 전도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 1,068명의 구역장이 전도상을 수여받고 동료 구역장들의 축하 속에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묵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